

제례 재구성 모델의 실증적 검증을 통한 제례 모델 재구성

Reform of sacrificial ritual model
through the empirical test of reformative model for Korean sacrificial rite

상명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 수 두 경 자

Dept. of Consumer & Housing studies sangmyung uni.
professor : Doo, Kyung-Ja

〈목 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제 | IV. 결과 및 해석 |
| II. 기존의 제례 재구성 모델 | V. 요약·결론 및 제례 모델 재구성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부록(분석표) |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re empirically to test the reformative model for Korean sacrificial rite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mographic variables. the survey was conducted by means of questionnaire with 600 persons located in Seoul.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

1. Sacrificial day ; was displayed (1) dead day (2) holiday in back and forth of dead day
2. Sacrificial time ; was showed (1) 8-9 h. p.m (2) 6-7 h. p.m
3. Sacrificial extent ; was displayed (1) grandparents and parents (2) only parents
4. Participative extent ; was showed (1) Cousin (2) only sons and daughters
5. Sacrificial procedure ; was displayed twice deep bow and 1 minute's silent prayer.
6. New year's and Chusok's rite ; was showed (1) simple foods
(2) joint leisure time
7. Sacrificial table ; was displayed (1) boiled rice · water · gustoish articles.
(2) omission of food table
8. rite's socialization ; was showed (1) delivery and marketing sale's food
(2) special sacrificial restaurant.
9. Womens' and mens' difference ; women were active but men were passive
10. Age's difference ; excepting 30-40, the all generations were more reformative.
11. Number of brothers ; small number of brothers were more reformative than a many number.
12. Sacrificial manager or not ; managers were conservative than persons were not managers.

◆ 주요어: 제례 재구성, 제사개변, 제사사회화, 제사간소화, 제례 예식장

I.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과제

조선시대 관혼상제 중 제사만큼 혈연에 집착하여 오늘날까지 집안행사로만 국한되어온 의례는 없다. 관례, 혼례, 상례는 이미 없어졌거나 시대에 맞게 개편되어 혼례는 혼례 예식장에서, 장례는 장례 예식장(영안실)에서 행함으로써 여러모로 무거운 현대인의 생활의 짐을 덜어 주고 있다. 그러나 제사는 장남 집에서 만머느리가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반드시 야간에 친족의 모임을 주관해야 한다는 기본 골격이 아직도 유지됨으로써 현대인의 정서와 생활에 큰 부담을 안겨 주고 있다.

제사에 관한 이러한 시대지체적 사고 방식은 이미 현대적 삶의 방식과 갈등을 일으키게되었고 그 결과 '젊은층으로 갈수록 참제기피현상이 심하고' (문옥표 1998) 경기도 파주군 농가대상의 조사(이기형 1982)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이미 몇몇 연장자만으로 제사의식을 거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례에 참석하지 못하는 현대인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도덕적인 죄책감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제사주관이나 참제를 어렵게 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제사를 강행시켰던 조선시대사회의 특징과 비교하면 두 사회는 매우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대인의 가정생활은 거의 핵가족 또는 독신가족 단위로 영위되고 있으며 출산율은 가족계획으로 인하여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여성 1명의 평균자녀수 1.42명; 통계청 1999). 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사고의 기준으로는 전혀 가부장적일 수 없는 딸만 둔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다양한 형태의 맞벌이 부부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남녀가 평등하게 경쟁하며 남녀 모두 가정의 행복은 물론 개인 발전이나 사회적 기여를 위하여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초 경쟁적인 사회(상시 구조조정)로 변모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변모 과정 속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남녀 모두 개인 또는 개인이 속한 가정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 특히 자원(시간, 금전, 노력, 에너지 등)에 관한 관리기술의 미숙함이나 비

합리성은 바로 개인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사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데 영향을 준다. 따라서 제사를 계속 집안 행사로 국한시킬 경우 자원관리상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한편 제례를 예학의 핵심으로 이끌었던 조선조 중기사회는, 생전·사후의 부모에게 모두 효도하게 함으로써 효(孝)의 원리를 국가에 대한 충(忠)을 실천하도록 유도하고, 가부장중심의 씨족들이 모여 혈연집단의 친목을 다지며 집단적으로 대처해야 할 수 있었던 봉건적 농경사회였다.

이러한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사만이 개편되지 않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제사가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므로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미 개편된 관례, 혼례, 상례 역시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 생각되어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제사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이유로 제액초복 사상이 가장 유력하다. 곧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잘못 지내면 조상께서 벌을 주고 제사를 잘 지내면 복을 준다는 한국인의 미신적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제액초복 사상의 근거는 아주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생전의 부모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녀를 무한정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의 영혼도 자녀 또는 자손의 행복을 진정으로 원할 것이다. 따라서 조상이 제사만으로 효심을 측정하여 후대에게 벌 또는 화를 내릴 것이라는 믿음이나 조상의 영혼이 벌이나 복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절대유일신이라는 믿음도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볼 때 제액초복 사상은 제사를 가부장권의 강화기회로 삼으려는 남성들의 의지와 생각이 응집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제사로 인한 혈연집단의 결속은 여러 가지 사회적 폐해를 산출하였다. 제사가 존속되어 오는 동안, 혈연 강조의 인간관계는 누적되어 혈연·지역·학연이라는 인간고리를 형성하였고, 같은 고리 속에 포함될 수 없는 타인은 철저히 외면되고 배척받는 폐해가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은 개인의 발전은 물론 국가사회발전이나 국민화합차원에서 나아가 인류 사랑을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커다란 장애요소

로 작용하고 있다.

제사의 개편을 다음대로 또 다음대로 계속 연기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불편한 일에 인내심이 없는 후대들에게 제사의 근본적인 효도사상마저 저버리게 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대 사회의 생활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제사개편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제사 개편안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 특히 불우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고인이 된 모든 영혼들의 명복을 함께 기원하는 인류에 실현차원에서 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사가 개인과 가족의 자원관리 측면에서 현대인의 생활과 마찰을 빚는 것이므로 제사의 개편과제를 가정 자원 관리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중국 고대의 제사관습 및 영혼관,

송유의 제사관, 우리나라 유교제례, 성별 제사관, 종교별 제사양상, 중국·일본의 제례 간소화 현황 등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구성된 제례재구성 모델(두경자 2000)을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검증하고 이론만이 집적된 연구 모형의 단점을 수정보완하며 나아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제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향에 초점을 두어 연구를 전개하였다. 첫째, 개편 또는 개편안에 관한 전반적 수용 경향은 어떠한가? 둘째, 남녀, 연령, 종교, 형제 수, 제사 주관자 여부에 따른 개편 또는 개편안에 관한 견해차이는 어떠한가?

II. 기존의 제례 재구성 모델

본 연구에서 검증될 기존의 제례 재구성 모델(두경자 2000)은 다음과 같다.

구분	모델 I	모델 II	
기 제	제사날짜	매년 사망일 또는 사망 전날, 사망일을 전후한 공휴일	매년 사망일 또는 사망일을 전후한 공휴일
	제사시간	늦은 저녁 식사시간(오후 8-9시경)	참제인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주간 또는 야간 중 편리한 시간
	봉사범위	조부모와 부모(2대)	시부모와 친정부모(1대)
	봉사기간	조부모의 봉사는 만자녀가 성인(만20세)이 될 때까지만 봉사한다.	· 지병, 또는 노쇠한 경우: 행동제약을 받기전까지만 봉사한다.
	참제범위	4촌 이내의 친척	고인의 자녀로 한정하며 자녀가 건강할 경우는 연령제한 없이 본인이 희망할때까지 참제 가능하다. (단 3촌 이상의 다른 친척이 참석을 원할 경우 참제가능)
	상차림및제수음식	밥,물,고인의 기호품(1점이상) 또는 밥을 제외한 제수음식을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가사 대체용역 이용 준비 가능	· 제수음식, 술: 생략 · 탁자를 놓고 고인의 생전시의 사진(또는 영정)을 놓은 후 향을 피운다. · 탁자, 사진, 향이 없을 경우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상차림대체효과 인정
연 시 제 · 절 사	연시제	· 부모님 생존시까지만 행례 · 제수음식; 떡국 또는 떡국이 여의치않을때는생자 중심의식사(시장구입, 가사대체 용역 이용준비 가능)	· 연시제 행례; 생략함(웃어른께 세배만 드린다) · 제수음식; 생략함 · 개인 또는 가족집단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 실천한다.
	절사	· 부모님 생존시까지만 행례 · 제수음식; 송편을 비롯한 모든음 식은시장구입, 가사 대 체용역 이용준비가능 · 성묘; 사후의 부모님 시신 또는 매장된 부모, 조상들의 시 신을 모두 거두어 화장한 후 납골당에 보관한다.	· 절사행례; 생략함 · 제수음식; 생략함 · 달을 보며 조상의 공덕을 기린다. · 개인 또는 가족집단으로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 실천한다. · 성묘; 사후의 부모님 시신, 매장된 부모 또는 조상들의 시신을 모두 거두어 화장한후 자연산천에 뿌림으로써 묘관리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구분	모델 I	모델 II
제례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수음식 상차림 앞에서 참제인들은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절을 2번 하거나 묵념한다. · 개인 또는 대표자 한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간단히 기원한다.(30초-1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놓인 탁자와 향을 피우고 개인 또는 집단으로 절을 2번하거나 묵념한다. · 탁자, 사진, 향이 없을 경우; 부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방향(동서남북 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 하거나 묵념한다. · 개인 또는 대표자 한사람이 고인의 명복을 간단히 기원한다.(30초-1분)
제사주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주관하거나 남자 형제간에 매년 윤회하며 행한다. · 아들이 없는 경우; 자매간에 매년 윤회하며 행한다. · 절, 성당, 교회 등 종교집단에 제사 위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여건이 허락하는 집에서 고정적으로 주관하거나 형제자매가 모두 매년 윤회하며 제사를 주관한다. · 지병으로 행동제한이 있는 고인의 자녀 또는 건강한 자녀일지라도 만 70세 이상된 고인의 자녀는 윤회 대상에서 제외한다. · 절, 성당, 교회 등 종교집단에 제사 위임 가능
불참제인 (不參祭人)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 앞 또는 부모님이 좋아 하시던 방향(동서남북 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하거나 묵념을 하고 간단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하여 그 공을 고인에게 돌린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앞 또는 부모님이 좋아하시던 방향(동서남북중) 또는 하늘을 향해 절을 2번하거나 묵념을 하고 간단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한다. · 불우이웃돕기 선행을 1가지 이상하여 그 공을 고인에게 돌린다.
회연(會宴)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수음식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없거나 부족하면 배달음식을 시킬수 있다. · 참제인들간에 친목을 다지되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음을 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단한 제례절차가 끝나면 고인 자녀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배달음식, 주문음식, 음식점 방문 등 모두 가능하다. · 처음부터 고인의 자녀들이 조용한 음식 접에 모여 그 자리에서 간단한 제례절차를 행한후 회연의 자리를 가질 수도 있다. · 어느 경우나 과음을 피한다.

Ⅲ.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및 조사도구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에 살고 있는 중고·대 재학중인 학생 249명(중고 89, 대학 160명), 30-40대(107명), 50대-60대(44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2001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시행하였다.(예비조사 5월 1일-10일, 본조사 5월 11일-30일)

조사 도구는 이미 문헌적 고찰을 통해 구성된 제례재구성 모델(두경자 2000)의 개변내용을 중심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내용은 기제의 날짜, 시간, 봉사범위, 봉사기간, 참제범위, 상차림 및 제수음식, 제례절차, 제사주관자, 연시제·절사, 불참제인 속죄

안, 회연의 기능등 제례재구성모델에 관한 10개문항과 제사를 지내는 이유, 제사지낼때의 애로점,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 연령, 종교, 형제수, 제사주관자 여부)등을 첨가하였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다수 포함한 관계로 인구 사회학적 변인에 자녀수, 직업, 출신지역, 학력, 소득 등은 제외 시켰다.

설문지는 총 600부를 배포하여 500부를 회수하였고 이중 전혀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학생 설문지 30부와 부실 기재된 설문지 등을 제외한 400부의 설문지를 통계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문항에 따른 응답과 무응답의 차이로 결측치에는 문항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 1〉 일반적 특성

N(400)		
변인	구분	N(%)
성별	남	187(46.8)
	여	213(53.3)
연령	10-20대	249(62.3)
	30-40대	107(26.8)
	50-60대	44(11.0)
종교	기독교	89(22.4)
	불교	71(17.9)
	천주교	66(16.6)
	기타	1(0.3)
	무교	170(42.8)
형제수	없거나 1명 미만	69(17.4)
	2명 이상	327(82.6)
제사주관자 여부	주관자	117(29.5)
	비주관자	280(70.5)

2. 자료 분석 방법

조사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PC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low percent)을, 제사개변안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검증에 위하여 자유도와 Chi-square test를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제사개변안에 관한 전반적 수용경향

〈표 2〉에 제시된 바와같이 제사개변안에 관한 수용경향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은 제사날짜, 시간, 봉사범위, 참제범위, 제례절차, 제사주관, 연시제, 절사, 제수 상차림 개변안, 제사사회안, 제사애로점 등이었다. 제사날짜는 사망전후 공휴일로 하자는 유통적인 의견이 가장 높았고 사망일전 공휴일-사망일 후 공휴일 순으로 나타나 사망일전을 사망일 후보보다 더 선호하였다.

제사시간은 현대적으로 개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

도적으로 높았고 오후 8-9시경(65.6%)이 가장 높아 사망일 저녁(홍남석 1992)이나 사망전날 저녁(박수정 1989) 등 저녁시간을 가장 많이 원한다는 기존연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주야불문 편리한 시간으로 하자는 견해는 15.1%로 낮게 나타났으나 가족합의에 따라 조정된 시간(김상혁 1989)을 원한다는 기존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다.

봉사범위는 2대만 모시자는 견해(36.1%)가 가장 높아 기존연구(김인옥 1997)와 동일하였다. 시·친정부 모 1대만 모시자는 견해(23%)와 조부모 제사는 첫 자녀 연령이 만20세까지만 모셔 며느리에게 제사의 짐을 넘기지 말자는 1.5대 견해(7.3%)를 합치면 30.3%가 2대이하 봉사를 주장함으로써 2대 이하 봉사견해가 2대 봉사 견해에 약간 못 미쳤으나 거의 근접하고 있는 경향이였다. 참제범위는 4촌이내(41%)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녀만 참석하자는 견해(34.3%)가 높았다. 이로써 참제범위는 이길표(1982)의 4촌이내, 김인옥(1997)의 형제까지의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제례절차는 현대적 개변 견해(70.2%)가 종전대로 행하자는 견해(30%)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개변안으로는 절 두 번·목념 1분(명복기원)으로 행하자는 견해(56%)가 가장 높고 고인울 회상하며 답소하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하자는 견해(38.4%)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제례주관은 윤회하자는 견해(54.3%)가 장자만 행해야 한다는 견해(25.6%)와 형편좋은 집에서 행해야 한다는 견해(20.1%)보다 월등히 높았다. 윤회방법은 형제자매 모두 윤회하자는 견해(61.3%)가 가장 높았으며 종교단체에 위탁하자는 견해도 9%로써 종교단체 위탁견해가 이미 형성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와는 무관한 양로원 방문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실제로 무료양로원(청운)과 유료양로원(노블카운티)에서는 제사를 종교단체(주로 절)에 위임하는 사람이 많다는 직원의 설명도 있었다. 연시제(설날제)는 현재대로 행하자는 견해(58%)가 개변견해(42%)보다 다소 높고 절사(추석제) 또한 연시제와 마찬가지로 현재대로 행하자는 견해(56.3%)가 개변견해(43.9%)보다 다소 높았다. 그러나 연시제, 절사에서 나타난 42-44%의 개변지지율은 개

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연시제 개편안은 음식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또는 공동문화생활을 하자는 견해(62.7%)가 가장 높아 중국의 제사없이 세배만 하고 공동놀이를 즐기는 춘절(두경자 2000)과 유사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제사는 생략하고 생존어른께 세배만 하자는 견해(30.1%)도 높은편이었으며 선행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하여 그 공을 조상께 드리는 것으로 대신하자는 견해(7.2%)도 이미 싹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절사 개편안은 음식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 생활을 하자는 견해(57.5%)가 가장 높고 달 구경하며 생활을 반성하자는 견해(35.1%)도 높은 편이었다. 이는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달을 감상하며 제사없이 휴일을 즐기는 중국의 중추절(陶立璠, 김종식역 1997)과 유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연시제 절사 모두 먹는 것 위주의 친목보다는 보다 질적인 공동례저 기회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수상차림 개편안은 밥·물·고인의 기호품만 놓자는 견해(47%)가 가장 높아 꽃한송이 묘지참배로 일본제사가 간소화되기 전의 물, 꽃, 고인의 기호품, 계절과일, 경단 등의 제수상차림보다 다소 간소화된 것을 원하였다. 그외에 음식, 술 모두 생략(17.3%), 술만(16.1%), 사진만(13.6%)의 순이었으며 음식·술 생략+술만+사진만 등의 견해를 합치면 47%가 밥조차 놓지 않는 제수상차림을 원하고 있었다.

제사 사회화안은 배달 및 시장판매 음식을 이용하는 견해(54%)가 제사 전문 음식점 이용 견해(46%)보다 다소 높았다.

제사 애로점은 예측대로 음식준비(46.7%)가 가장 높고 참석 불가능(26.7%), 비용(21.3%)순으로 나타나 가난을 유산처럼 물려받고 살았던 우리 민족의 먹는 것 위주의 모임견해를 엿볼 수 있다.

2. 변인별 경향

(1) 성별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녀별 견해차이가 의

미있게 나타난 변인은 제사시간, 봉사범위, 참제범위, 제례절차, 제례주관, 연시제, 절사, 제사 사회화 안, 제사애로점 등이었다.

제사시간에서는 남녀 모두 융통적인 개편을 원하였고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개편을 원하였다. 봉사범위는 남자는 2대-3대-4대의 조상을 모시자는 순으로, 여자는 2대-1대-3대를 모시자는 순으로 나타나 남녀모두 2대만 모시자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3대, 4대를 모시자는 비율은 남자가 더 높고 시·친정부모 1대만 모시자는 비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거의 2배로 높았다. 2대를 모시되 조부모 제사는 첫 자녀 연령이 만 20세까지만 모시자는 1.5대 견해는 여자가 남자보다 2배 가량 높았다.

참제범위에서는 남자는 4촌이내-8촌이내-자녀만의 순으로, 제사에 참석하기를 원하였고 여자는 4촌이내-자녀만-8촌이내의 순으로 나타나 4촌이내만 참석하자는 견해가 남녀 모두 가장 높았다. 자녀만 참석하자는 견해는 여자가 남자보다 매우 높고 8촌이내 친척의 참석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원하였다.

제례절차에서는 남녀모두 현행보다 더 간단한 절차를 원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간소화된 제례절차를 더 원하였다.

제사주관에 대해서는 남녀모두 제사운회를 바랐으며 장자, 형편좋은 집에서 지내자는 견해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고 운회하자는 견해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더 높았다.

운회방법으로는 남녀모두 형제자매 운회를 원하였으며 형제만 운회, 종교단체위탁 등에서는 남자가, 형제자매 모두 운회에서는 여자가 더 높았다.

연시제는 남녀모두 현재대로 하자는 견해가 높았으나 여자가 남자보다 '현재대로'보다는 간소화를 더 원하였다.

연시제 개편안으로는 남녀 모두 음식 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생활 등을 원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원하였다. 생존어른께 세배만, 선행(불우 이웃돕기)등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으며 특히 선행으로 대신하자는 견해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약 8배나 높았다.

절사(추석제)는 연시제 때와 마찬가지로 남녀모두

‘현재대로 행하자’는 견해가 높았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간소화를 더 원하였다.

절사의 개변안으로는 남녀 모두 음식 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생활 등을 원하였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더 원하였다. 달구경, 생활반성으로 대신하자는 견해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으나 선행으로 대신하자는 견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다.

제사사회화 방안으로는 남자는 배달 및 시장판매 음식으로 대체하자는 비율이 여자보다 더 높고 여자는 제사전문 음식점을 이용하자는 비율이 남자보다 2배이상 더 높았다.

제사 애로점에서 남자는 참석 불가능-비용-음식준비 순서인 반면 여자는 음식준비-참석 불가능-비용 순으로 음식 준비는 여전히 여자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제사개변 문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여자는 적극적이고 남자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두경자(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2) 연령별

연령별 견해 차이가 의미 있게 나타난 변인은 제사날짜, 제사시간, 봉사의무기간, 참제범위, 제수음식, 제사 주관, 불참제인 속죄안, 제사이유, 제사 애로점 등이었다.

제사 날짜는 모든 연령층에서 ‘종전대로’ 견해가 ‘개변’ 견해보다 높았으며 개변을 원하는 순서는 10-20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은 50대 이상이 30-40대보다 더 높았다. 제사자체를 행하지 않겠다는 10-20대 응답자(30명)를 감안하면 20대 이하의 개변 견해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사시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개변을 원했고 개변을 원하는 순서는 50-60대, 30-40대, 10-20대의 순서로써 30대 이상이 더 원하였다.

제사시간 개변안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오후 8-9시경을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며 오후 6-7시경에서는 10-20대가, 주야간 어느 때나 편리한 시간이 좋다는 견해는 의외로 50-60대가 가장 많았다. 제사경험이 많은 50-60대가 가장 현대정서에 맞는 합리적인 시간대를 주장한 것은 불참제인을 최소

화하려는 배려 때문으로 보인다.

개인 봉사의무기간은 모든 연령층에서 ‘행동계약 전까지만’봉사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그 순서는 30-40대가 가장 높고 10-20대가 가장 적었으며 50-60대에서는 ‘행동계약 전까지만’ 과 ‘만 70세까지만’이 동일한 비율을 보여 의외로 개혁의식이 높았다.

참제 범위는 10-20대는 ‘사촌이내’를 30-40대, 50-60대는 ‘자녀만’ 참제하기를 바랐으며 의외로 50-60대에서 자녀만의 참제를 가장 높게 원하였다. 이는 제사를 지내본 경험이 있는 30대 이상에서 제사의 애로점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수 음식에서는 10-20대, 50-60대는 ‘중부 직접마련’을, 30-40대는 ‘맞춤주문·형제분담’과 ‘중부 직접마련’ 견해가 거의 유사하였다. 중부 직접마련을 주장하는 이유는 10-20대는 음식준비의 애로점을 경험해보지 못한데서, 50-60대는 제액초복사상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음식상을 생략하자는 견해는 의외로 50-60대가 가장 많고(34.1%) 그 다음이 30-40대(24.3%)였으며 10-20대가 가장 적었다.(16.1%) 이는 제사 경험이 많은 연령층일수록 조상 영혼 식사의 불가능성을 체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수음식 개변안으로는 10-20대와 30-40대는 ‘밥·물·고인의 기호품’을 50-60대는 ‘사진만’ 놓기를 원함으로써 50-60대가 가장 간단한 상차림을 원하였다.

제사 주관의 유회방법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형제 자매 유회’를 원하였고 ‘형제만’ 유회하자는 견해는 30-40대가 가장 높았다. 종교 단체 위탁에서는 50-60대가 가장 높게 선호하였으며(33.3%) 30-40대, 10-20대 순이었다.

불참제인 속죄안으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하늘 향해 사유고백·고인 명복기원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어디서나 절 두 번하고 고인 명복기원’을 두 번째로 들었다. 선행으로 대신하자는 견해는 30-40대가 가장 높고 10-20대가 그 다음이었으며 50-60대는 전혀 없었다. 이는 제사를 인류에 실현차원으로 높이고자하는 마음의 준비가 혈연애에 묶인 고연령대보다는 젊은층에서 더 높음을 시사한다.

제사이유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친척간 모임기회’

가 된다고 하였으며 30대 이상에서는 습관적으로 제사를 지낸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10-20대는 '제액초복'과 '습관적'의 비율이 거의 유사하여 제사주관경험이 적은 20대 이하에서도 제액초복에 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사 애로점으로는 10-20대는 음식준비, 참석불가능, 30-40대는 참석불가능과 음식준비를, 50-60대는 '비용'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제사의 애로점이 음식, 금전, 시간제약과 관련된 것들임을 알 수 있다.

(3) 종교별

종교별 견해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난 변인은 제사날짜, 제사시간, 봉사범위, 제수음식, 제례절차, 제사주관, 연시제, 절사, 제사의 장소 등으로 나타났다.

제사날짜에서는 기독교만 개변을 주장하였고 불교, 천주교, 무교등은 종전대로 행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종전대로'는 56.8%, '개변'은 43.2%로써 제사날짜의 융통적인 개변 견해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개변을 바라는 순서는 기독교-불교-천주교로 기독교가 가장 높고 천주교가 가장 낮았다.

제사시간 개변안은 어느 종교에서나 오후 8-9시경을 가장 적당한 시간으로, 오후 6-7시경을 그 다음으로 생각하였으며 '주야간 어느 때나 편리한 시간'으로 하자는 견해는 기독교-천주교-무교-불교순으로써 기독교가 가장 개변적이었다. 봉사범위는 어느 종교에서나 '2대만' 모시자는 견해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순서로 기독교는 1대를, 불교는 3대, 4대(동일비율)를, 천주교는 3대를 들었다. 시·친정부모 1대만을 모시자는 견해는 기독교-무교-불교-천주교의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높고 천주교가 가장 낮았다. 1.5대를 모시자는 견해는 천주교, 기독교가 높고 불교가 가장 낮았다.

제수음식 준비는 기독교는 '음식상 생략'을, 불교, 무교는 '종부 직접 마련'을, 천주교는 '종부 직접 마련'과 '맞춤주문·형제분담(동일비율)'을 주장하였다.

'음식상 생략'은 기독교-무교-불교-천주교의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높고 천주교가 가장 낮았다.

제례절차에서는 간소화 70.2%, 종전대로 29.8%로

써 어느 종교나 '간소화'를 높게 주장하였다. 제례절차 개변안으로 기독교는 '생전모습 회상·담소'로 제례절차를 대신해야 한다고 보았고 무교, 불교, 천주교는 공히 '절 두번·목념 1분'으로 대신해야 한다고 하여 기독교만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에서 절을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주관은 어느 종교나 '형제자매간유회'를 희망하였고 그 순서는 기독교-무교-천주교-불교로써 기독교가 가장 높게 유회를 원하였고 '장자'만이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불교가 가장 높았다.

연시제와 절사에서는 기독교만이 '간소화'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불교, 천주교, 무교는 '현재대로'행하기를 바랐다.

제사 장소로는 어느 종교나 '집안 행사로 국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기독교는 '집안 행사로 국한'과 '집밖 행사로 사회화'가 거의 동일 수준에 근접하여 기독교가 가장 개변적임을 알 수 있다. '집밖 행사로 사회화'시키자는 견해는 기독교-천주교-불교-무교의 순으로 기독교가 가장 높고 무교가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가장 개변적이며 천주교 불교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는 두경자(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며 또한 불교가 타종교에 비해 더 전통적이었다는 연구(이정우·김명나 1993)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4) 형제수

형제수에 따른 견해차이가 의미있게 나타난 변인은 제사날짜, 제사시간, 봉사범위, 제사이유, 제사애로점 등이었다.

제사날짜에서는 형제가 없거나 1명인 경우는 '융통적 개변'을 원하였으며 형제수가 2명 이상인 경우는 '종전대로'를 원하였다. 이는 다른 형제의 견해를 반영하여 날짜를 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사시간에서는 형제 수에 관계없이 '융통적 개변'을 원하였으나 형제수가 2명 이상인 경우가 그 이하인 경우보다 융통적 개변을 더 높게 희망하였다. 이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모이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식

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봉사범위에서는 형제 수에 관계없이 '2대' 모시기를 바랐으며 '시·친정부모 1대만 모시자'는 견해는 형제 수에 관계없이 22%이상을 나타내 그 견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 제사는 첫 자녀가 만 20세까지만 모시자'는 1.5대 견해는 10% 미만으로써 형제수가 없거나 1명인 경우가 2명 이상인 경우보다 더 높았다.

제사 이유로는 형제 수에 관계없이 '친척간 모임 기회'를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형제가 없거나 1명인 경우는 제액 초복을, 2명 이상인 경우는 '습관적' 행사라고 응답하였다.

제사 애로점으로는 형제 수에 관계없이 '음식준비'를 가장 어려운 사항으로, '참석 불가능'을 그 다음 애로점으로 들어 음식준비가 시급히 간소화되어야 할 사항임을 시사하였다.

(5) 제사 주관자 여부

제사 주관자 여부에 따라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제사날짜, 봉사범위, 제례절차, 제사주관, 불참제인 속죄안, 제사이유 등으로 나타났다.

제사날짜에서는 주관자, 비주관자에 관계없이 '중전대로'를 희망하였고 주관자가 비주관자보다 '중전대로'를,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오히려 융통적 개변을 더 주장하였다.

봉사범위에서는 주관자 비주관자 거의 유사한 비율로 '2대'를 모셔야 한다고 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관자는 '3대'를, 비주관자는 '1대'를 들었다.

'시·친정부모 1대를 모시자'는 안은 주관자, 비주관자가 각각 21.6%이상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견해가 이미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아울러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1대봉사를 더 높게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 제사는 첫 자녀 연령이 만 20세까지만 모시자'는 1.5대 견해는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3배가량 더 높아 역시 주관자가 비주관자보다 더 보수적인 성향임을 나타냈다. 제례절차에서는 주관자 비주관자 모두 '간소화'를 희망하였고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더 높게 간소화를 원하였다.

제사주관에서는 주관자 비주관자 모두 형제자매운

회를 희망하였고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더 높게 운회를 희망하였다. '장자'가 주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견해는 주관자가 비주관자 보다 거의 2배가량 높았다.

불참제인 속죄안은 주관자 비주관자 모두 '하늘 향해 사유 고백·고인 명복 기원'을 들었으며 선행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하여 속죄하자는 견해는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4배가량 더 높았다.

제사이유로 주관자 비주관자 모두 '친척간 모임 기회'라고 하였고 '제액초복'으로 응답한 비율은 주관자 비주관자 거의 비슷하였으며 '습관적'이라고 응답한 견해는 주관자가 비주관자보다 매우 높아 상당수의 주관자들이 습관적으로 제례를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사의 장소로는 주관자 비주관자 공히 '집안행사로 국한'하기를 바랐으며 주관자가 비주관자보다 더 높게 원하였다.

'집밖행사로 사회화'하자는 견해는 주관자 27.6%, 비주관자 34.1%를 나타냄으로써 비주관자의 제사 사회화 견해가 주관자보다 더 높았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중국 고대의 제사관습 및 영혼관, 송유(宋儒)의 제사관, 우리나라 유교제례, 성별제사관, 종교별 제사양상, 중국·일본의 제례간소화 현황등 문헌고찰을 통해 고안된 제례 재구성모델(두경자 2000)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 이론적으로 입안된 기존 모델의 단점을 보완 수정한후 현대인의 생활과 정서에 맞고 보다 실천적인 단계적 제례재구성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사날짜 : 중전대로 하자는 견해가 개변견해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개변견해는 20대 이하인 경우, 기독교인 경우, 형제수가 적은 경우, 비주관인 경우에 높았으며 제사개변날짜는 사망일 전 후 공휴일을 가장 선호하였다.
2. 제사시간 : 오후 8-9시경에 행하자는 견해가 가장 높고, 여자가 남자보다, 형제 수가 많은 경우가

적은 경우보다 융통적 개선을 더 원하였으며 주야간 어느 때나 편리한 시간으로 행하자는 견해는 50대 이상 연령층과 기독교, 천주교에서 높았다.

3. 봉사범위 : 2대 봉사가 가장 높았으며 2대 봉사는 2대 이하 봉사(1대 또는 1.5대)보다 5.8% 높았다. 3대, 4대 봉사는 남자가, 1대, 1.5대 봉사는 여자가 더 높았으며 1대, 1.5대 봉사는 기독교와 천주교, 형제수가 적은 경우, 비주관자인 경우에 높았다.

4. 개인봉사의무기간 : 모든 연령층에서 행동제한 전까지만 봉사하기를 원하였다. 50대 이상에서는 '행동제한전까지'와 '만 70세까지'를 동일한 비율로 원하였다.

5. 참제범위 : 4촌 이내의 참제가 가장 높고 자녀만 참석하자는 견해는 30대 이상에서 높았다.

6. 제례절차 : 절 두 번 · 명복기원(1분)으로 하자는 견해가 가장 높고 고인을 회상하며 답소하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하자는 견해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기독교는 생전모습 회상 · 답소를, 그 외 종교에서는 절 두 번 · 명복기원(1분)이 높았다.

7. 제사주관 : 형제자매 모두 윤회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고, 기독교가 가장 높고 불교가 가장 낮았다. 5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종교 단체에 위탁을 가장 선호하였다.

8. 제사상차림 : 밥 · 물 · 고인의 기호품만 놓자는 견해가 가장 높았다. 이는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고, 50대 이상은 사진만 놓자는 견해가 높았다. 음식준비는 30-40대는 맞춤주문, 형제분담을,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종부 직접 마련이 가장 높았다. 음식상 생략은 기독교가 가장 높았고 천주교가 가장 낮았다.

9. 연시제 · 절사 : 현재대로 행하자는 견해가 개변 견해보다 11.4% 높았다. 개변안으로는 음식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생활을 하자는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 이는 여자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10. 불참제인 속죄안 : 하늘을 향해 사유고백 · 고인명복기원 견해가 가장 높았으며 선행으로 속죄하자는 견해는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높았다.

11. 제사사회화안 : 배달 및 시장 판매음식을 이용하자는 견해가 가장 높았다.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았고 여자는 제사전문음식점을 이용하자는 견해가 남자보다 더 높았다. 제사장소로는 모든 종교에서 집안 행사로 국한시키자는 견해가 가장 높았고 집밖행사로 사회화시키자는 견해는 기독교, 천주교가 높고 비주관자가 주관자보다 높았다.

12. 제사이유 : '친척간 모임 기회'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높았으나 30대 이상의 연령층과 제사주관자는 습관적으로 지낸다고 응답한 경우가 높았다.

13. 제사에로점 : 남자는 참석 불가능, 여자는 음식준비라고 응답하였다.

이상의 요약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아직까지도 제사를 종전대로 지내자는 견해가 개변견해보다 더 우세하였다. 그러나 개변견해는 상당수준 이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급속한 사회변화를 고려할 때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모든 자녀들은 서서히 현대의 생활과 정서에 부합하는 제사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개인 또는 가정 자원을 합리적 또는 균형적으로 관리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의에 따라 발전된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제례 모델 재구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제사가 처음부터 종교적인 토양 위에서 성장하고 고착되어 온만큼 모든 종교에서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제례 재검토를 행함으로써 개인 또는 사회발전의 장애요소인 자원 낭비요소를 제거하는데 종파를 초월한 단일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제례 재구성모델(두경자 2000)을 수정보완한 보다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실행이 용이하며 보다 단순한 제례 모델을 재구성하고자 한다. 제사의 개변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현재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약간 진전된 안을 모델 I 에, 더 미래적으로 간소화 된 안을 모델 II 에 제시하였다.

〈 수정을 통한 제례 모델 재구성 〉

구 분	모 델 Ⅰ	모 델 Ⅱ	
기 제 사	장소	집안행사로 국한	제례 예식장
	날짜	사망일 또는 사망일 전 공휴일	사망일 전후 공휴일
	시간	오후 8-9시경	주야불문 편리한시간
	조상봉사범위	1.5대(조부모제사:첫 자녀 연령이 만 20세까지만)	1대만 (시, 친정부모)
	개인 봉사의무기간	만70세까지 (행동계약시는 70세 이전도 해제가능)	만 70세까지(행동계약시는 70세 이전도 해제가능)
	참제범위	4촌이내	자녀만(3촌이 원할 경우 참제가능)
	제례절차	절두번 또는 묵념 1분(고인명복기원)	생전모습회상·단소
	주관	형제자매 모두 윤회	종교단체위탁 또는 선행(불우이웃돕기)으로대신
	음식준비	맞춤주문·형제 분담 배달 및 시장판매 음식 이용	조용한 제사전문음식점(제례예식장) 이용
상차림	밥·물·고인의 기호품	사진만	
불 참제속죄	하늘 향해 사유고백후 고인명복기원	선행(불우이웃돕기)으로 대신	
연 시 제	장소	부모가 사시는 곳 또는 자녀집	부모가 사시는 곳 또는 자녀집 또는 여행지
	날짜	음력설(1월 1일)	음력설 (1월 1일)
	시간	시택 : 오전 11시(아침 점심겸) 친정택 : 오후 6시(저녁식사)	시택 : 오전 11시(아침 점심겸) 친정택 : 오후 6시(저녁식사)
	참석범위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
	음식준비	맞춤주문·자녀분담, 배달·시장판매음식	배달 및 시장판매음식
	주관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자녀 모두 윤회
	제사상차림	떡국만	생략
	제례절차	절두번	생략
	자녀친목	공동놀이 또는 공동불우시설 방문선행	공동문화생활(연극,영화,오페라,음악회등) 또는 공동불우시설 방문 선행 또는 집단여행
불 참제속죄	하늘 향해 사유고백후 조상들 명복기원	선행(불우이웃돕기)으로 대신	
절 사	장소	부모가 사시는 곳 또는 자녀집	부모가 사시는 곳 또는 자녀집 또는 여행지
	날짜	음력 한가위(8월 15일)	음력 한가위(8월 15일)
	시간	시택 : 오전 11시(아침 점심겸) 친정택 : 오후 6시(저녁식사)	시택 : 오전 11시(아침 점심겸) 친정택 : 오후 6시(저녁식사)
	참석범위	자녀 또는 손자녀	자녀 또는 손자녀
	음식준비	맞춤주문·자녀분담, 배달 및 시장판매음식	배달 및 시장판매음식
	주관	부모를 모시는 자녀	자녀 모두 윤회
	제사상차림	송편과 고인이 좋아했던 햇과일 1-2종류	생략
	제례절차	절두번	생략
	자녀친목	공동놀이 또는 공동불우시설 방문선행	공동문화생활(연극,영화,오페라,음악회등) 또는 공동불우시설 방문 선행 또는 집단여행
불 참제속죄	달보며 고인 명복기원	달보며 고인회상 또는 생활반성	

【참 고 문 헌】

- 김상혁(1989). 관혼상제. 서울:하서출판사
- 김인옥(1997). 전통제례에 관한 생활 문화적 고찰과
현행제례의 실태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두경자(2000). 우리나라 제례의 검토와 제례재구성
모델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 문옥표(1998). 한국인의 가정의례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 79호
- 이기형외 2인(1982). 한국 공업화에 따른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소 사회과학연구 제 8집
- 이길표(1982). 가례를 통해 본 한국인의 의식구조연
구(혼·제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김명나(1993). 주부의 가정의례에 대한 의
식·행동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
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 8호
- 홍남석(1992). 생활예절, 성암출판사
- 陶立璠 著, 김종식 역(1997). 중국민속학의 이해, 집
문당
- 통계청(1999). 인구주택 총조사

□ 접수일 : 2001년 8월 13일

□ 심사완료일 : 2001년 11월 18일

< 부 록 >

【분석표 (표 1-7)】

< 표 2 > 전반적 경향

(N=400) (low %)									
변인	구분	N(%)	X ²	DF	변인	구분	N(%)	X ²	DF
제사날짜	종전대로	228(57.1)	0.76	1	제례절차	종전대로	119(29.8)	26.04**	1
	현대적 개변	171(42.9)				현대적 개변	280(70.2)		
개변안	사망일전공휴일	49(29.2)	4.66*	2	개변안	절두번 · 목념1분	155(56.2)	7.9**	2
	사망일후공휴일	22(13.1)				대표자만 절두번	15(5.4)		
	사망전후공휴일	97(57.7)				· 명복기원 (큰소리로)			
제사시간	종전대로	61(15.3)	7.01**	1	제사주관	장자	102(25.6)	21.9***	2
	현대적 개변	337(84.7)				형편좋은집	80(20.1)		
개변안	오후 8-9시경	221(65.6)	8.66**	2	윤회방법	윤회	216(54.3)	9.75**	2
	오후 6-7시경	65(19.3)				형제만 윤회	63(29.7)		
	주야불문 편리한시간	51(15.1)				형제 · 자매모두 윤회	130(61.3)		
봉사범위	4대	51(12.9)	25.76***	4	연시제	현행대로	232(58.0)	7.56**	1
	3대	82(20.7)				현대적 개변	168(42.0)		
	2대	143(36.1)			개변안	생존어른께 세배만	50(30.1)	19.9***	2
	1.5대(조부모제사, 첫자녀연령이만20세될 때 까지만)	29(7.3)				음식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생활	104(62.7)		
1대(시 · 친정 부모)	91(23.0)	선행(불우이웃돕기)	12(7.2)						
봉사의무기간	죽을때까지	13(14.4)	1.86	2	절사	현행대로	225(56.3)	10.3***	1
	행동제약전까지	45(50.0)				현대적 개변	175(43.8)		
참제범위	8촌이내	98(24.7)	9.51**	2	개변안	달구경 · 생활반성	61(35.1)	5.89*	2
	4촌이내	163(41.1)				음식간소화, 덕담, 공동놀이, 공동문화생활	100(57.5)		
	자녀만	136(34.3)				선행	13(7.5)		

〈표 3〉 성 별

(N=400)

변인		구분					
제사시간			종전대로	융통적 개변			
		남	38(20.4)	148(79.6)			
		여	23(10.8)	189(89.2)			
	개변안	전체	61(15.3)	337(84.7)			
		DF	1				
		X ²	7.008**				
봉사범위			오후 8-9시경	오후 6-7시경	주야간 편리할때		
		남	90(60.8)	26(17.6)	32(21.6)		
		여	131(69.3)	39(20.6)	19(10.1)		
	개변안	전체	221(65.6)	65(19.3)	51(15.1)		
		DF	2				
		X ²	8.660**				
참제범위			4대	3대	2대	1.5대 (조부모제사: 첫 자녀연령이 만 20세까지만)	1대만 (시,친정부모)
		남	37(20.2)	43(23.5)	65(35.5)	9(4.9)	29(15.9)
		여	14(6.6)	39(18.3)	78(36.6)	20(9.4)	62(29.1)
	개변안	전체	51(12.9)	82(20.7)	143(36.1)	29(7.3)	91(23.0)
		DF	4				
		X ²	25.76***				
제례절차			8촌이내	4촌이내	자녀만		
		남	58(31.4)	74(40.0)	53(28.7)		
		여	40(18.9)	89(42.0)	83(39.2)		
	개변안	전체	98(24.7)	163(41.1)	136(34.3)		
		DF	2				
		X ²	9.51**				
제사주관			종전대로	간소화			
		남	79(42.3)	108(57.8)			
		여	40(18.9)	172(81.1)			
	개변안	전체	119(29.8)	280(70.2)			
		DF	1				
		X ²	25.94***				
제사주관			장자	형편좋은 집	윤희(형제자매모두)		
		남	64(34.6)	43(23.2)	78(42.2)		
		여	38(17.8)	37(17.4)	138(64.8)		
	개변안	전체	102(25.6)	80(20.1)	216(54.3)		
		DF	2				
		X ²	21.883***				

*P<.05 **P<.01 ***P<.001

(low %)

〈표 3〉 계속

제사주관	윤회안	형제만	형제자매모두	종교단체위탁			
		남	31(40.8)	36(47.4)	9(11.8)		
		여	32(23.5)	94(69.1)	10(7.4)		
	전체	63(29.7)	130(61.3)	19(9.0)			
	DF	2					
	X ²	9.745**					
연시제	남	현재대로	간소화				
		남	122(65.2)	65(34.8)			
		여	110(51.6)	103(48.4)			
	전체	232(58.0)	168(42.0)				
	DF	1					
	X ²	7.56**					
설날제	개변안	생존어른께 세배만	음식간소화·떡담	선행			
			공통놀이·공동문화생활	(불우이웃돕기)			
		남	26(40.6)	28(43.8)	10(15.6)		
	여	24(23.5)	76(74.5)	2(2.0)			
	전체	50(301.)	104(65.7)	12(7.2)			
	DF	2					
	X ²	19.91***					
절사	남	현재대로	간소화				
		남	121(64.7)	66(35.3)			
		여	104(48.8)	109(51.2)			
	전체	225(56.3)	175(43.8)				
	DF	1					
	X ²	10.20***					
추석제	개변안	달구경·생활반성	음식간소화·떡담	선행			
			공통놀이·공동문화생활	(불우이웃돕기)			
		남	21(31.8)	36(54.6)	9(13.6)		
	여	40(37.0)	64(59.3)	4(3.7)			
	전체	61(35.1)	100(57.5)	13(7.5)			
	DF	2					
	X ²	5.89*					
제사화안	남	배달음식·시장판매음식이용	제사전문음식점이용				
		남	38(71.7)	15(28.3)			
		여	30(41.1)	43(58.9)			
	전체	68(54.0)	58(46.0)				
	DF	1					
	X ²	11.58***					
제사애로점	남	비용	음식준비	제사시간	남존여비	참석불가능	
		남	6(33.3)	3(16.7)	0(0.0)	0(0.0)	9(50.0)
		여	10(17.5)	32(56.1)	2(3.5)	2(3.5)	11(19.3)
	전체	16(21.3)	35(46.7)	2(2.67)	2(2.67)	20(26.7)	
	DF	4					
	X ²	12.7*					

〈표 4〉 연령별

(N=400)

제사 날짜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종전대로	개변			
			131(52.8)	117(47.2)			
	DF		2				
	X ²		6.49*				
제사 시간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종전대로	개변			
			54(21.8)	194(78.2)			
		DF		2			
		X ²		21.08***			
	개변안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오후8-9시경	오후6-7시경	주야 어느때나 편리한 시간		
119(61.3)			43(22.2)	32(16.5)			
	DF		4				
	X ²		11.50*				
개인 봉사 의무 기간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죽을때까지	행동제한전까지만	만 70세까지		
			12(23.1)	23(44.2)	17(32.7)		
		DF		4			
		X ²		8.53*			
	참여 범위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8촌이내	사촌이내	자녀만	
74(30.1)				111(45.1)	61(24.8)		
		DF		4			
		X ²		34.02***			
제수 음식		준비	10-20대 30-40대 50-60대 전체	종부직접마련	가정부· 파출부이용	맞춤주문· 형제분담	음식상생략
	113(45.6)			4(1.6)	91(36.7)	40(16.1)	
		DF		6			
		X ²		17.99**			

〈표 4〉 계속

제수음식	개변안		술만	음식·술모두생략	밥·물	밥·물·고인의기호품	사진만
			10-20대	12(30.0)	6(15.0)	3(7.5)	17(42.5)
30-40대	1(3.9)	6(23.1)	1(3.85)	16(61.5)	2(7.7)		
50-60대	0(0.0)	2(13.3)	1(6.7)	5(33.3)	7(46.7)		
전체	13(16.1)	14(17.3)	5(6.2)	38(46.9)	11(13.6)		
	DF	8					
	X ²	27.64***					
제사주관	유희방법		형제만	형제·자매모두	종교단체위탁		
			10-20대	38(27.3)	93(66.9)	8(5.8)	
30-40대	21(38.2)	29(52.7)	5(9.1)				
50-60대	4(22.2)	8(44.4)	6(33.3)				
전체	63(29.7)	130(61.3)	19(9.0)				
	DF	4					
	X ²	17.662***					
불참속제례인안			어디서나 절두번,명복기원	하늘향해사유고백 명복기원	선행 (불우이웃돕기)		
			10-20대	52(21.1)	170(68.8)	25(10.1)	
30-40대	30(28.6)	60(57.1)	15(14.3)				
50-60대	8(19.1)	34(81.0)	0(0.0)				
전체	90(22.8)	264(67.0)	40(10.2)				
	DF	4					
	X ²	11.02*					
제사이유			제액초복	습관적	친척간 모임기회		
			10-20대	50(20.2)	47(19.0)	151(60.9)	
30-40대	13(12.4)	36(34.3)	56(53.3)				
50-60대	2(4.6)	18(40.9)	24(54.6)				
전체	65(16.4)	101(25.4)	231(58.2)				
	DF	4					
	X ²	19.26***					
제사애로점			비용	음식준비	시간	남존여비	참석불가
			10-20대	10(20.0)	27(54.0)	1(2.0)	1(2.0)
30-40대	3(15.0)	7(35.0)	0(0.0)	1(5.0)	9(45.0)		
50-60대	3(60.0)	1(20.0)	1(20.0)	0(0.0)	0(0.0)		
전체	16(21.3)	35(46.7)	2(2.7)	2(2.7)	20(26.7)		
	DF	8					
	X ²	16.98*					

*P<.05 **P<.01 ***P<.001

(low %)

〈표 5〉 종교별

(N=400)

제사 날짜		종교	종전대로	개변			
			기독교	38(42.7)	51(57.3)		
		불교	41(58.6)	29(41.4)			
		천주교	41(62.1)	25(37.9)			
		기타	0(0.0)	1(10.0)			
		무교	105(61.8)	65(38.2)			
		전체	225(56.8)	171(43.2)			
		DF	4				
		X ²	11.09*				
제사 기간	개 변 안	종교	오후 8-9시경	오후 6-7시경	주야 어느때나 편리한 시간		
			기독교	34(46.0)	20(27.0)	20(27.0)	
		불교	42(77.8)	7(13.0)	5(9.3)		
		천주교	36(62.1)	15(25.9)	7(12.1)		
		기타	0(0.0)	0(0.0)	1(100.0)		
		무교	107(72.3)	23(15.5)	18(12.2)		
		전체	219(65.4)	65(19.4)	51(15.2)		
		DF	8				
		X ²	27.38***				
봉 사 범 위		종교	4대	3대	2대	1.5대 (조부모제사: 첫자녀가 만 20세까지만)	1대 (시·친정부모)
			기독교	8(9.1)	10(11.4)	33(37.5)	8(9.1)
		불교	16(22.9)	16(22.9)	24(34.3)	2(2.9)	12(17.1)
		천주교	10(15.2)	12(18.2)	24(36.4)	9(13.6)	11(16.7)
		기타	0(0.0)	0(0.0)	0(0.0)	0(0.0)	1(100.0)
		무교	17(10.1)	42(25.0)	62(36.9)	9(5.4)	38(22.6)
		전체	51(13.0)	80(20.4)	143(36.4)	28(7.1)	91(23.2)
		DF	16				
		X ²	29.57*				
계 수 음 식	준 비	종교	중부직접마련	가정부·파출부이용	맞춤주문·형제분담	음식상생략	
			기독교	27(30.7)	1(1.1)	26(29.6)	34(38.6)
		불교	39(54.9)	0(0.0)	22(31.0)	10(14.1)	
		천주교	28(42.4)	2(3.0)	28(42.4)	8(12.1)	
		기타	0(0.0)	0(0.0)	0(0.0)	1(100.0)	
		무교	81(47.7)	3(1.8)	59(34.7)	27(15.9)	
		전체	175(44.2)	6(1.5)	135(34.1)	80(20.2)	
		DF	12				
		X ²	34.1***				

〈표 5〉 계속

제례절차	차	기독교	종전대로	간소화		
		불교	17(19.1)	72(80.9)		
		천주교	29(40.9)	42(59.2)		
		기타	19(28.8)	47(71.2)		
		무교	0(0.0)	1(100.0)		
		전체	53(31.4)	116(68.6)		
		전체	118(29.8)	278(70.2)		
	개별안	DF	4			
		X ²	9.66*			
	개별안	기독교	절두번	대표자만 절두번	생전모습	
목님1분			명복기원(큰소리)	회상·답소		
28(39.4)			8(11.3)	35(49.3)		
불교			27(65.9)	1(2.4)	13(31.7)	
천주교			24(51.1)	2(4.3)	21(44.7)	
기타			1(100.0)	0(0.0)	0(0.0)	
무교			74(64.9)	4(3.5)	36(31.6)	
전체	154(56.2)	15(5.5)	105(38.3)			
제사주관	DF	8				
	X ²	17.29*				
제사주관	기독교	장자	형편좋은집	윤회(형제자매모두)		
		17(19.1)	14(15.7)	58(65.2)		
		불교	26(36.6)	15(21.1)	30(42.3)	
		천주교	16(24.2)	15(22.7)	35(53.0)	
		기타	0(0.0)	1(100.0)	0(0.0)	
		무교	42(24.9)	36(21.3)	91(53.9)	
		전체	101(25.5)	81(20.5)	214(54.0)	
연시제	DF	8				
	X ²	13.92*				
연시제	기독교	현재대로	간소화			
		38(42.7)	51(57.3)			
		불교	48(67.6)	23(32.4)		
		천주교	42(63.6)	24(36.4)		
		기타	1(100.0)	0(0.0)		
		무교	101(59.4)	69(40.6)		
		전체	230(57.9)	167(42.1)		
연시제	DF	4				
	X ²	12.96**				

〈표 5〉 계속

절 사 추 석 제		현재대로	간소화	
		기독교	37(41.6)	52(58.4)
		불교	48(67.6)	23(32.4)
		천주교	41(62.1)	25(37.9)
		기타	0(0.0)	1(100.0)
		무교	98(57.7)	72(42.4)
	전체	224(56.4)	173(43.6)	
	DF	4		
	X ²	13.86**		
제 사	장 소	집안행사로 국한	집밖행사로 사회화	
		기독교	45(51.7)	42(48.3)
		불교	52(73.2)	19(26.8)
		천주교	45(68.2)	21(31.8)
		기타	1(100.0)	0(0.0)
		무교	125(74.0)	44(26.0)
	전체	268(68.0)	126(32.0)	
	DF	4		
	X ²	14.73**		

*P<.05 **P<.01 ***P<.001

(low %)

〈표 6〉 형제수

(N=400)

제사 날짜	없거나1명 2명이상 전체	종전대로	유통적 개변			
		31(45.6)	37(54.4)			
		194(59.3)	133(40.7)			
		225(57.0)	170(43.0)			
	DF	1				
	X ²	4.33*				
제사 시간	없거나1명 2명이상 전체	종전대로	유통적 개변			
		16(23.2)	53(76.8)			
		45(13.9)	280(86.2)			
		61(15.5)	333(84.5)			
	DF	1				
	X ²	3.80*				
봉사 범위	없거나1명 2명이상 전체	4대	3대	2대	1.5대 (조부모제사: 첫자녀가 만 20세까지만)	1대 (시·친정부모)
		15(22.1)	12(17.7)	19(27.9)	7(10.3)	15(22.1)
		36(11.1)	69(21.3)	122(37.7)	21(6.5)	76(23.5)
		51(13.0)	81(20.7)	141(36.0)	28(7.1)	91(23.2)
	DF	4				
	X ²	8.21*				
제사 이유	없거나1명 2명이상 전체	제액초복	습관적	친척간 모임기회		
		16(23.2)	10(14.5)	43(62.3)		
		48(14.8)	91(28.1)	185(57.1)		
		64(16.3)	101(25.7)	228(58.0)		
	DF	2				
	X ²	6.81*				
제사 애로 점	없거나1명 2명이상 전체	비용	음식준비	시간	남존여비	참석불가능
		0(0.0)	13(86.7)	0(0.0)	0(0.0)	2(13.3)
		16(26.7)	22(36.7)	2(3.3)	2(3.3)	18(30.0)
		16(21.3)	35(46.7)	2(2.7)	2(2.7)	20(26.7)
	DF	4				
	X ²	12.68**				

*P<.05 **P<.01 ***P<.001

(low %)

〈표 7〉 주관자 여부

(N=400)

제사 날짜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종전대로	융통적개변			
		77(65.8)	40(34.2)			
		148(53.1)	131(47.0)			
		225(56.8)	171(43.2)			
	DF	1				
	X ²	5.47*				
봉사 범위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4대	3대	2대	1.5대 (조부모제사: 첫자녀연령이 만20세까지만)	1대 (시·친정부모)
		20(17.2)	27(23.3)	41(35.5)	3(2.6)	25(21.6)
		30(10.8)	54(19.5)	102(36.8)	26(9.4)	65(23.5)
		50(12.7)	81(20.6)	143(36.4)	29(7.4)	90(22.9)
		DF	4			
	X ²	8.51*				
제례 절차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종전대로	간소화			
		46(39.3)	71(60.7)			
		73(26.2)	206(73.8)			
			119(30.1)	277(70.0)		
	DF	1				
	X ²	6.78**				
제사 주관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장자	형편좋은집	윤회(형제, 자매 모두)		
		45(38.5)	19(16.2)	53(45.3)		
		57(20.5)	62(22.3)	159(57.2)		
			102(25.8)	81(20.5)	212(53.7)	
	DF	2				
	X ²	13.93***				
불속 참외 제안 인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어디서나 절두번 명복기원	하늘향해사유고백 명복기원	선행 (불우이웃돕기)		
		30(26.3)	80(70.2)	4(3.5)		
		60(21.7)	181(65.3)	36(13.0)		
			90(23.0)	261(66.8)	40(10.2)	
	DF	2				
	X ²	8.15*				
제사 이 유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제액초복	습관적	친척간 모임기회		
		18(15.4)	40(34.2)	59(50.4)		
		46(16.6)	62(22.4)	169(61.0)		
			64(16.2)	102(25.9)	228(57.8)	
	DF	2				
	X ²	6.10*				

〈표 7〉 계속

장 소 사	주관자 비주관자 전체	집안행사로 국한	집박행사로 사회화
		84(72.4)	32(27.6)
		184(66.0)	95(34.1)
	268(67.9)	127(32.2)	
	DF	1	
	X ²	5.57*	

*P<.05 **P<.01 ***P<.001

(low %)